



글.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중국대륙 시리즈 제4편

연태시의 공덕기



연태 시내 APT촌

약 력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전문위원
MBC 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 서: '일본뒹굴목 엿보기', '프랑스 뒹굴목 이야기',
'지구촌 뒹굴목 음식 한 그릇',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
소 설: '외인부대원 괴레앙'

나그네는 엔타이(烟台)시로 접어든다.

우리나라 인천과 마주보고 있는 산둥성의 항구도시, 엔타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비하이(碧海)호텔을 체크인 했다.

12층의 우람한 빌딩, 별 4개인 이 호텔의 하루 방값은 360위안.

우리 돈으로 5만 5천원쯤 한다.

지방이어서 별 4개짜리 호텔 치고는 값이 싼 편이다.

나그네는 재작년에도 이 호텔에 며칠 머문 적이 있다.

새로운 호텔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지만, 나는 대개 전에 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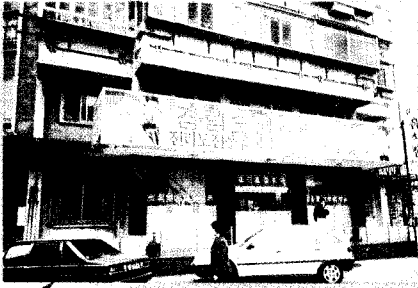
호텔에 다시 투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오사카를 갈 때는 요도아바시(淀屋橋)에 있는 센터호텔

에서 잠을 잔다.

12년 전 처음 오사카에 출장 갔을 때 거기서 열흘을 잔 적이

있는데 그후로도 오사카에 가면 거기서 잠을 자게 된다.



연태시내의 한국 음식점



연태시 호텔 뒷길



항구 가는 길의 한국건재상

도쿄에서는 간다(神田)에 있는 한국 YMCA호텔 (3233-0611)이 단골숙소이다.

이 호텔은 한국 YMCA의 재산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개 노보텔을 이용한다.

런던에서는 하이드 파크온 플라자, 홍콩에서는 침사 초이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베이징에서는 화자띠에 있는 사회 과학원 초대소를 주로 이용한다.

말하자면 그곳이 대개 처음 그 도시를 방문해서 잤던 곳이고, 그게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다.

갈 때마다 새로 호텔을 찾는 것보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 호텔을 찾아가는 것이다.

2년만에 비하이 호텔에 들어서니 재작년 모습 그대로다. 바뀐 것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낀다.

방도 웬만하면 전에 잤던 그 방을 달라고 한다.

투숙객이 이미 들어있을 때는 같은 층에 있는 방을 달라고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익숙해진 방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선다.

엔타이시는 2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

발전을 하지 않았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칭다오, 다렌시 등이 하루가 다르게 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기는 발전이 늦다.

엔타이는 산동성의 중앙직속 항구중 하나이다.

산동성의 중앙 직속 항구는 3곳인데, 나머지 두 곳은 칭다오(청도)항과 일조항이다.

엔타이는 우리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무역이 활발하다.

인천, 부산, 군산과 정기항로가 열려있다.

그것뿐이 아니라 엔타이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무역을 하고 있는 국제여객 노선도 13개에 달한다.

엔타이항은 중국 500대 기업 중 285위의 규모이다.

엔타이시는 좀 너저분하다.

칭다오(청도)나 웨이하이(위해), 다렌(대련)에 비하면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본래 이 도시는 1400년 전인 당나라 때부터 무역항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된 건 아무래도 1862년 아편전쟁 이후 일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엔타이는 항구로서의 기능은 했다.

엔타이 즉 연기를 피어 올리는 돈대라는 말은 명나라 때 외국의 침입을 보고 알리는 봉화대라는 말에서 이 도시의 지명이 유래 된다는 것에서도 이 도시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68만.

호텔에서 몇 발자욱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야시장이 열렸다. 알전구를 켜놓고 포장마차 촌이 불야성을 이뤘다. 수백 개의 음식 좌판이 펼쳐져 있고, 그 뒤로는 옷, 신발, 머리띠, 모자, 악세사리 장사들이 장사진을 쳤다.

야시장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모두 서민들이다.

고함지르며 손님을 끄는 장사치와 물건을 좀 싸게



연태, 야시장 주변 공공변소

중국인도 본래부터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런 문화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시장 안의 공공축소와 궁덕기의 화장실.

요즘 중국인은 1960년대와 2000년대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

사보려고 흥정하는 손님들로 시장이 떠들석하다. 포장마차에서 양 꼬치구이 다섯 개를 손에 든 장사치가 나그네에게 '이콰이(일원), 이콰이(일원)'하고 먹기를 권한다. 나무대 젓가락에 썬 양고기 구이 5개가 160원이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라 조금 비위생적이겠지만, 숯불에 구운 것이니 위생에는 별 문제가 없다. 양꼬치를 사서 그걸 부채살처럼 펴들고 하나씩 사먹으면서 시장 안을 기웃거린다.

어디서나 시장판은 왁짜지껄, 활기에 넘친다.

나그네도 자수를 놓은 식탁보 두 장을 60위안(9600원)에 사들고, 시장 안 여기저기를 기웃거린다.

헌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다보면 불일을 보아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나. 그런 생각이 불쑥 든다.

시장 안 여기 저기를 찾아보니, 〈公共廁所(공공축소)〉, 즉 공중변소가 한 곳 있다.

공공축소 앞에는 관리인이 동글뱅이 의자 하나를 놓고 전대를 차고 앉아있다. 요금은 20마오(角) 즉 30원쯤이다.

가만히 보니 그 돈이 비싸서인지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30마오를 내고 구경 삼아 들어갔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든 내 모습을 본 관리인이 뭔가 수상쩍었는지 안을 기웃거리며 엿보는 통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밤이라 후레쉬를 떠트려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러자니 그의 의심을 받게된다. 결국 사진을 못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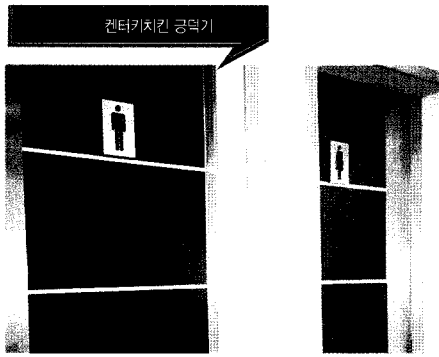
중국인들은 보기보다 자존심이 강해 자신들의 치부를 외국인에게 보여주길 싫어한다.

재작년에 나그네는 엔타이 시 외곽의 노천 시장에서 양곰탕을 한 그릇 사먹으면서 비디오 촬영을 하다가 시장 상인의 신고로 파출소에 끌려간 일이 있었다.



연태 궁덕기, 킨터키 실내

연태 궁덕기 정경 (켄터키)



경찰서 외사과 과장까지 출동해서 무려 여섯 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테이프를 뺀채 무혐의로 풀려 나온 적이 있었다. 그 여섯 시간은 내 평생에 가장 긴 시간이었고, 불안했다. 그런 경험이 있을 후 부터는 카메라를 들이대기가 조심스러워진다.

화장실 안은 수세식이었지만 지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결국 공중화장실 내부의 사진을 찍는데는 실패했다. 시장 거리에서 저녁밥을 해결할까 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데 웬지 위생상태가 조금 찝찝해 보인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해 왔지만, 때로 찝찝할 경우에는 먹지 않는다.

가끔 배탈이 나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음식이 상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씻지 않은 그릇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음식은 선불에 굽거나 튀기거나 삶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릇을 깨끗이 씻지 않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배탈로 이어지는 수가 있다.

자, 어쨌거나 시내에 나왔으니 여기서 식사를 해결하고 가야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야시장 초입에 '궁덕기'가 있다.

센터기 후라이드 치킨 체인점이다.

내가 해외 여행을 하면서 제일 자주 가는 곳이 바로



궁덕기 아니면 맥당로 (맥도날드) 햄버거이다.

마땅한 음식이 없거나 화장실을 가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곳이다.

궁덕기와 맥당로는 전세계 어디나 화장실이 깨끗하다.

궁덕기에 들어가서 3위안(48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부터 하나 먹고, 화장실부터 갔다.

궁덕지의 화장실. 이곳은 시장 안의 공공축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공공축소나 60년대라면 여기는 21세기이다.

문짜의 디자인부터 다르다.

중국인들이 종업원이고, 중국인들이 사용하는데도 이곳의 화장실은 깨끗하다.

그렇다면 중국인도 본래부터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런 문화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시장 안의 공공축소와 궁덕기의 화장실.

요즘 중국인은 1960년대와 2000년대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하는 삶을 살고있다.

